

한국어의 어원과 발상, 그리고 명명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I. 서언
- II.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 1.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의 유형
 - 2.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의 실제
- III. 기타 감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 1. 청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 2. 미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 3. 후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 4. 촉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 IV. 결어

I. 서언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에 달렸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언어에 의해 표현된다. 장심위정(藏心爲情) 출구위어(出口爲語)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않아 비근한 예를 들어 “바늘 구멍” 하나를 표현한다고 하여도 언어마다 차이가 난다. 한국어의 “바늘귀”, 중국어의 zhenbir(針鼻儿), 일본어의 めところ(目處), 영어의 needle's eye와 같이 귀, 코, 눈 등으로 초점에 차이가 난다. 발상(ideation)과 표현이 다르다.

언어는 그 말의 유연성(有緣性)을 파악할 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원을 파악한다는 것은 언어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 외에 교육적 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그것도 고유어 체언의 복합어를 중심으로 어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논의는 새로운 어원의 탐구라기보다 사물의 명명을 어떻게 하고, 그 조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발상(發想)에 초점을 맞추는 고찰이다. 어원과 발상의 문제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관(五官)을 통해 사물을 파악하고, 이를 비유에 의해 확대 해

석함으로 객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물의 명명을 보면 시각적(視覺的) 현상에 따른 발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다음 이 청각에 의한 것이며, 후각 미각 촉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형상, 색채, 음성상징 등에 따른 발상과 명명, 조어가 현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명명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어의 조어도 필요한 대로 예가 들려질 것이다.

II.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시각은 사물의 형상(形狀)과 색채와 빛을 지각한다. 따라서 시각에 따른 발상은 형감어, 색감어, 광감어 등을 생성해 낸다. 사물의 모양에 따라, 색깔에 따라, 명암과 같은 빛에 따라 발상을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조어를 하는 것이다. 특히 시각은 일반적으로 형태에 의한 지각을 많이 하게 하며, 대소, 후박(厚薄), 세태(細太), 표리와 같이 대조적으로 많은 것을 파악하게 한다. 색채는 흑백의, 빛깔은 명암에 의한 대조에 의한 발상을 많이 한다.

1.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의 유형

1) 형감에 따른 발상과 명명

(1) 형태에 따른 발상과 명명

사물의 형상(形狀)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형태와 상태로 나눌 수 있다. 형태는 생김새나 모양을, 상태는 사물과 현상이 놓인 모양이나 형편을 말한다. 명명은 대부분의 경우 형태에 바탕을 두고

발상을 하고 있다. 사물의 생김새나, 대소, 후박, 세태, 표리를 바탕으로 발상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갈치(刀), 괴발개발(苗足犬足), 메밀(角麥), 코끼리(鼻長), 패랭이꽃(平涼笠)” 같은 것이 그것이다. 예문 가운데 <중>, <일>, <영>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예임을 의미한다.

- 갈치(刀魚): 갈(刀) - 치(접사 · 魚) cf. 刀魚<중>, 太刀魚<일>
- 곳어름: 고드름. 곳(直) - 얼(氷) - 음(접사) 곧 - 어름 고드름 cf. 氷柱 · 氷錐<중>, ひょうちゅう(氷柱)<일>, icicle<영>
- 괴좃나무: 구기자(拘杞子). 괴(貓) - 좃(陰莖) - 나무 괴좃나무(얼매의 형상에서)
- 닭살: 오돌도돌한 살갓. とりはだ(鳥肌)<일>, chicken-skin · goose-skin<영>
- 매부리코: 응비(鷹鼻). 매(鷹) - 부리(嘴) - 코(鼻) cf. 鷹鉤鼻子<중>, わしばな(鷲鼻) · かぎばな(鉤鼻)<일>, hawk nose · hooked nose<영>
- 무지개: 홍예(虹霓). 물(水) - 지개(戸) cf. 彩虹<중>, にじ(虹)<일> rainbow<영>
- 쥐눈이콩: 여우콩, 서목태(鼠目太). 쥐(鼠) - 눈(目) - 이(접사) - 콩(太). たんきりまめ(痰切豆), きんちゃくまめ · きつねまめ<일>
- 코끼리: 상(象). 코(鼻) - 길(長) - 이(접사). 고킬리(월석) 코끼리(시경). cf. 象<중>, ぞう(象)<일>
- 털부채게: 게의 일종. 털(毛) - 부채(扇) - 게(蟹)

(2) 상태에 따른 발상과 명명

상태를 기초로 한 발상의 명명은 사물과 현상이 놓인 모양이나 형편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태에 따른 직접적 발상에 비해 시각성이 떨어지며, 다소간의 추상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기초로 한 발상의 명명도 우리말에는 많다.

- 고별: 감기. 공(鼻) - 불(火). 공 - 불 곳불 고별 cf. 感冒<중>, かぜ · 感冒<일>, cold<영>

- 곱창: 소의 작은창자. 곱(膏) - 장(腸). 곱장 > 곱창. cf. 중세음 tsiang. 창자(腸子). 牛小腸 <중>, 小腸 <일>
- 구메밥: 구멍으로 넣어 주는 밥. 구무(穴) - 의 - 밥(飯)
- 누에(蠶): 천충(天虫). 눅(臥) - 예(접사) > 누웨 > 누에. 蚕 <중>, かいこ(蚕) <일>
- 도리깨: 농구(農具). 돌(回) - 이(접사) - 스 - 개(접사)
- 목숨: 생명. 목(頸) - 숨(息) > 목숨 cf. 生命 <중>, いのち <일>, life <영>
- 부뚜: 풍석(風席), 붓(扇) - 돛(席) > 부돛 > 부뚜. cf. 붓다 > 붓다 > 부치다
- 새끼: 새끼(仔). 슬(股) - 기(접사) > 샅기 > 새끼. 崽 <중>, 仔 - 子供 <일>
- 어르신: 성인(成人). 열(交接) - 으 - 시(존칭접사) - ㄴ(접사) > 어르신. cf. 成人 <중>, おとな(大人) <일>, adult <영>
- 함박꽃: 작약(芍藥). 한(大) - 박(瓠) - 꽃(花). 大朴花(芍藥) <향집>, 芍藥花 <중>, 芍藥 <일>

2) 색깔과 광감에 따른 발상과 명명

(1) 색깔에 따른 발상과 명명

색채는 명도(明度)와 채도(彩度)에 의해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어에는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청 · 홍 · 흑 · 백 · 황의 5색이 있다. 사물은 이러한 색채어에 의해 여러 가지로 구분 명명된다. 색채어는 동물명에 많이 쓰인다. 무늬와 관련된 어휘는 많지 않다.

① 색채어:

- 가마괴(烏): 감(黑) - 아괴(접사). 가마괴 <龍歌>, 가마괴 > 까마귀 cf. 烏 <중>, からす(烏) <일>, crow <영>
- 감장새: 현조(玄鳥). 굵디앙(鍋煤) - 새 > 감장 - 새
- 까마중이: 식물명. 까마(黑) - 중이(접사). cf. いぬほおずき(犬酸漿) · 龍葵 <일>
- 노른자위: 단황(蛋黃). 노른 - 즈(核) > 노른 - 자위 cf. 卵黃 <중>, きみ(黃

身)〈일〉, yolk〈영〉

- 불개미: 불(火) - 가얌이(蟻), 불가얌이)불개미 cf. 紅蟻〈중〉, あかやま
あり〈일〉
- 푸르대콩: 청태(靑太), 프르(靑) - 대(株) - 콩, cf. 靑豆〈중〉, あおまめ〈일〉
- 흰독말풀: 풀이름, 흰 - 독(毒) - 말풀, cf. 朝鮮朝顔·きちが(氣違)いな
ずび(茄子)〈일〉

② 무늬(紋様):

- 무지개떡: 층마다 다른 빛깔의 시루떡, 무지개(霓) - 떡(餅)
- 바둑개: 화구(花狗), 바둑(斑) - 개)바둑개, 花狗〈중〉, ふち犬〈일〉
- 얼룩말: 얼룩말(花馬), 얼룩(斑) - 말(馬) cf. 斑馬·花馬〈중〉, しまうま
(縞馬)〈일〉

(2) 광감에 따른 발상과 명명

광감은 광선에 대한 지각으로, 명암(明暗)이 이의 대표적 속성이다. 이밖
에 해, 달, 별, 불과 같은 광원(光源)이 포함된다.

- 발기: 새벽(平旦), 곧(접사) - 밝(明) - 이(접사)
- 달빛: 월광(月光), 들 - 빛)달빛, cf. 月光〈중〉, つきあかり(月明)〈일〉
- 박쥐: 편복(蝙蝠), 밝(明) - 쥐(鼠) > 밝쥐)박쥐 cf. こうもり〈일〉 bat〈영어〉
- 새벽(曉): 새(東) - 밝(明) > 새복)새벽 cf. 拂曉〈중〉, あかつき(曉)〈일〉
- 어둑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두운 빛살, 어둑(暗) - 발(빛발)

2.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의 실제

1) 대립적 특징에 따른 발상과 명명

시각적 대상을 나타내는 말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소, 후박,
세태(細太), 표리, 흑백과 같이 대조적으로 파악하여 명명한 것이 많다. 이 밖
에 선후(先後), 신구(新舊), 본말(本末), 인과(因果), 진부(眞否)의 대조에 의해

서도 많이 명명된다.

(1) 대소(大小)

“크다~작다, 잘다” 외에 “하다, 말-, 아춘, 조막, 혹다” 등에 의해 구별, 명명하고 있다.

- 말잡자리: 청령(蜻蛉). 물(大) - 준즈리(蜻蛉) 말잡자리 cf. こうにやんま<일>
- 아주미: 아춘(小) - 엄(母) - 이(접사). cf. 嫂子<중>, おば(小母)<일>
- 아춘설: 작은 설. 세모(歲暮). 아춘(小) - 설(元旦). 아춘설밤(除夕)<역어>
- 잔소리: 쇤언(瑣言). 잔(小) - 소리. cf. 잔돈(散錢). 嘮叨<중>, 小言<일>
- 조랑말: 몸집이 작은 말. 조랑(小) - 물(馬) 조랑말 cf. 短腿馬·矮馬<중>, こうま(小馬)<일>
- 큰말: 대변(大便). 큰(大) - 물(便). cf. 작은말(小便). 大便<중>, 大便<일>
- 하늘(天): 하늬<하늘>하늘. cf. 한-불(大光明, 大原) · 한-울(大卵) · 한-울(大蓋). 天·天空<중>, てん(天)·そら(空)<일>
- 한숨: 탄식. 한(大) - 숨(息). cf. 歎息<중>, ためいき(溜息)<일>
- 황새: 관조(鶴鳥). 한(大) - 식(鳥) 환식<황새>. cf. 鶴<중>, こう(鶴)ずる<일>
- 효근굴: 작은 굴. 등자(橙子). 효근궤 등(橙)<자화>

(2) 후박(厚薄)

“두텁다(두껍다)~얇다, 뚱뚱하다~홀쭉하다” 등에 의해 구분, 명명된다.

- 두꺼비(蟾): 둘(厚) - 업(접사) - 이(접사). 두터비 섬(섬(蟾)<유합>. cf. 둔겁이(물보)>두꺼비. 蟾蜍<중>, がま・ひきがえる(蟾蜍)<일>
- 두껍단이: 두껍창(窓). 두껍(厚) - 닫(閉) - 이
- 두께살: 두껍게 찢 살. 두께(厚) - 살(肉)
- 두텁떡: 厚餅. 두텁(厚) - 떡(餅)
- 뚱보: 뚱뚱한 사람. 뚱(厚) - 보(사람). 大胖子<중>, てぶ・ふと(太)つち

よ<일>

- 알팍수: 알팍한 수. 알팍(薄)-수
- 엷푸름: 박청(薄靑). 엷(薄)-푸름(靑).

(3) 세태(細太) · 광협(廣狹)

“가늘다~굵다, 슬다, 흘쭉하다, 넓다~좁다” 등의 구별에 의해 명명한다.

- 가는체: 가는 체(細飾). ㄴ느-체<가는체. cf. 굵은체
- 굵은베: 굵은 울로 성기게 짠 삼베. cf. 가는베. 粗麻布<중>
- 너럭바위: 넓은 바위. 넓-억(접사)-바회(岩)<너럭바위. 너럭바회<松江>
- 넓적다리: 대퇴(大腿). 넓적(廣)-다리(脚). cf. 대퇴(大腿)<중>, ふともも(太股)<일>
- 소쿠리: 대나 씨리로 만든 그릇. 오합(烏盆). 술(細)-고리(栲). 숯고리<속고리<물보>
- 솔웃: 송곳. 솔웃 초(錐)<자회>. 솔(細)-긋(串)<솔웃>송곧<송곳 cf. 錐子<중>, きり(錐)<일>
- 송곳니: 견치(犬齒). cf. 犬齒·虎牙<중>, いときりは(絲切齒)<일>
- 잔허리: 가는 허리. 잔(細)-허리(腰). cf. 腰眼<중>, よわこし(弱腰)<일>
- 흘쭉이: 흘쭉한 사람. 흘쭉(瘦)-이(접사). 瘦子<중>, やせつぼち<일>

(4) 표리(表裏)

“갓·겂, 앞~뒀·속·겂” 등에 의해 구분, 명명한다.

- 가죽: 갓(表皮). 갓(皮)-웁(접사)<가죽. cf. 皮<중>, かわ(皮·革)<일>
- 겂치레: 외식(外飾). 겂(外)-치레(飾) cf. 虛飾·粉飾<중>, うわべかざ(飾)리<일>
- 뒀나랏: 외국. 뒀(外)-나랏(國). 바깥나라.
- 소갈머리: 마음·생각의 비어. 속(裏)-알-머리(頭). cf. 소갈-딱지.
- 속곳: 여자의 내복, 속(內)-겂(物)<속곳

- 솥옷: 내의. 솥(裏) - 옷(衣)〈구방〉. 솥옷>속옷 cf. 內衣・汗衫〈중〉, はだぎ(肌着)・したぎ(下着)〈일〉
- 아내: 처(妻). 앓-애(內子)〈안해〉아내. cf. 妻子〈중〉, 家内・女房〈일〉
- 안주머니: 속주머니. 안(內) - 줍(把) - 어니(접사). cf. 줍치, 바깥주머니

(5) 선후(先後)

“만~막, 올·일~늦, 앞이, 끝-, 끝” 등에 의해 구분, 명명한다.

- 꼴찌: 마지막 차례. 꼴(末) - 찌(접사). cf. 꼴등, 꼬라비(〈꼴-아비〉. cf. 倒數第一・最後〈중〉, びり・とんじり〈일〉)
- 끝물: 그 해의 맨 마지막에 생산되는 것. 끝(終) - 물(물건·물질) cf. 막물. 末茱・末季〈중〉
- 늦모내기: 만이앙(晩移秧). 늦(晩) - 모(苗) - 내기(出). cf. 모내기. 挿秧〈중〉, 田植え〈일〉
- 막내: 형제 중의 맨 끝. 막(終) - 낳이〉막나이〉막내. 막나이(晩生子)〈역어〉°すえつこ(末子)・すえ(末)〈일〉
- 막물태: 맨 끝물에 잡은 명태. 막(終) - 물(물건) - 태(明太)
- 만물: 제일 먼저 수확한 것. 몬(頭) - 물(물건·물질). 몬물>뭇물(한칭)>만물. cf. 頭茱의〈중〉, はつもの(初物)・はつな(初生)り〈일〉
- 아이빨래: 애벌빨래. 아시(初回) - 빨래>아시 - 빨래>아이빨래. cf. 아시띠다
- 오사리: 이른 사리. 올(早) - 사리(大潮)>오사리. cf. 오사리잡눔
- 올벼: 조도(早稻). 올(早) - 벼(稻) 올벼>오려. 오려 點心〈청구〉. cf. 早稻〈중〉, わせ(早稻)〈일〉
- 일죽음: 요절(夭折). 일(早) - 죽(死) - 음(접사). cf. 夭折・早逝〈중〉, はやじ(早死)に・わかじ(若死)に〈일〉
- 첫이레: 아이가 태어난 지 이레 되는 날. 첫 - 이레(七日).
- 한가위: 추석. 한(最) - 갑(中間・半) - 애(접사). 嘉俳>가위

“새~예 · 현, 해(年), 묵(陳), 오라” 등에 의해 구분, 명명된다.

- 묵나물: 진채(陳菜). 묵(陳) - ㄴ뽕(菜). cf. 묵나물 - 밥(陳菜食)
- 묵은해: 구년(舊年). 묵은(舊) - 해(年)
- 새살림: 신흠살림. 새(新) - 살(生) - 리(집사) - ㄹ(집사). cf. 사름사리아
어느 시러곰 니르리오(生理焉得說)〈두시〉. cf. 新生活〈중〉, 新世帶〈일〉
- 색시: 신부. 새(新) - 가시(女, 妻). 새가시)새각시(박연)·식악시(女兒·
화어)〉색시. cf. 新娘〈중〉, 新婦〈일〉
- 시앗: 첩(妾). 식(新) - 갓(妻)〉식갓)식앗)시앗. 늬의 식앗 되야〈청구〉
- 시집: 媳家. 식(新) - 집(家)〉식 - 집)시집. 식지비 가(속삼). cf. 婆家〈중〉,
婚家〈일〉
- 옛고을: 故鄉. 네(昔) - ㅅ - ㄹ을(鄉)〉넛 - 고을)옛고을)옛글. 넛ㄹ을히
라와 도토다〈두시〉. cf. 故鄉·故里〈중〉, 故郷·ふるさと(古里)〈일〉
- 오란비: 장마. 오란(長·久) - 비(雨). 오란비 림(霖)〈자회〉.
- 햅쌀: 햅쌀(新米). 햅(新年) - 쌀(米)〉햅쌀
- 햏소옴: 햏솜. 햏소옴〈계축〉. 햏(新年) - ㅅ - 소옴(綿)〉햏솜
- 헌옷: 폐의(弊衣). 헌(弊) - 옷. 헌오솔 니브사(월곡)

(7) 본말(本末)

“밋~긋”으로 본말을 구분, 명명한다. 이 밖에 지엽을 나타내는 “가지”가 있다.

- 가지뿌리: 원뿌리에서 갈려 나간 뿌리. 결뿌리. 지근(枝根). 불휘)뿌리.
- 굿니시: 단속(斷續). 굿(末) - 닛(繼) - 이. 굿니시 업게 호리라(범록)
- 끝손질: 끝마무리. 끝(最終) - 손(手) - 질(접사). cf. 收尾孔雀(중), 仕上
げ(일)
- 밋남진: 본 남편. 밋(本) - 남진(男人) > 밋 - 남신. 밋남진 廣州] 쓰리뷔
중스<청구>. cf. 結髮丈夫·本夫(중), 本夫(일)

- 밑계집: 본처(本妻). 밑겨집 녀중이 식어마님을 더욱 공경하야 (妻女宗
養姑愈敬)<삼강>
- 밑얼굴: 본질(本質). 質은 꾸밈 업슨 밑얼구리라.<금삼>
- 밑집: 본가(本家). 밑집>밑집>밋집. 사름이 밑지블 몰라<월석>. 老家
<중>, 本家·里方·實家<일>
- 밑천: 본전(本錢). 밑(本)-천(錢). 다른 내 밑천만 갑고(只還我本錢)<박
통사언해>. 本金·本錢<중>, 元金·本金<일>

(8) 인과(因果)

원인으로서의 상태를 제시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발상의 명명이다.

- 두루마기: 주의(周衣). 두르(圍)-우(접사)-막(防)-이(접사). 두르막이>
두루마기
- 땀띠: 한진(汗疹). 땀(汗)-되약(疹). 땀되야기(훈몽)>땀되>땀찌(한청).
cf. 땀때기(方言). cf. 排子<중>, あせば(汗疹)<일>
- 마중물: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붓는 물. 맞(迎)-웅(접사)-물
(水)>마중물
- 맞은소리: 메아리. 맞은(對)-소리. 맞은-소리>맞은소리. 마즌소리 향
(響)<유합>. cf. 回響·回音<중>, やま(山)びこ·こだま<일>
- 목도리: 목에 두르는 물건. 목(頸)-도르(廻)-이(접사)>목도리. cf. 圍
巾<중>, くびまき(首卷)<일>
- 불가심: 적은 양의 음식. 불(頰)-가시(洗)-로(접사)
- 손씻이: 수고비를 주는 일. 손(手)-씻(洗)-이(접사). cf. 입씻이
- 어른: 성인(成人). 얼우(交合)-ㄴ(접사). 얼운>어른. 아히 어른 업시<벽
신>. cf. 成人<중>, 大人<일>
- 열쇠(鍵): 열(開)-쇠(鐵). 열쇠 시(鋌)<자회> cf. 銅匙·關鍵<중>, かぎ
(鍵)<일>
- 열없쟁이: 소심한 사람. 열(膽)-없(無)-쟁이(접사). cf. “열적다(膽小)

는 방언. 膽小人<중>, て(照)れや(屋)・はにかみや(屋)<일>

- 옷깃차례: 시계방향. 옷깃(衣襟) - 차례(次第)>옷깃차례
- 입씻김: 입막음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는 일. 입(口) - 씻(洗) - 기(접사) - ㄹ(접사).
- 입씻이: 입막음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입 - 씻(洗) - 이(접사). cf. 賄口 賄金<중>, くちど(口止)め・くちぐすり(口藥)<일>
- 장기튀김: 연쇄반응. 도미노현상. 장기(將棋) - 튀기(탄彈) - ㄹ(접사)
- 해바라기: 향일련(向日蓮). 히 - 바라(望) - 기>해바라기. cf. 向日葵<중>, 日廻り<일>

(9) 진부(眞否)

사물의 진위, 양부(良否)에 따른 발상에 의해 명명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참, 돌, 개, 군”과 같은 접두어가 사용된다. “참”은 일부 명사에 붙어 “①진짜의, 진실하고 올바른, ②품질이 좋은”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돌”과 “개”는 일부 동식물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야생상태의, 품질이 떨어지는”을 나타낸다. 그리고 “개”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①헛된, 쓸데없는, ②(부정적 의미의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 나타낸다. 우리 말 어휘에는 이러한 “참~개, 참~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거나, 단독으로 제시함으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품질의 양부, 및 유무용(有無用)의 대조적 명명을 참으로 많이 한다. “참꽃, 참비름”과 같은 경우는 “참”이 식용이 가능함을 나타내기까지 한다. “개”는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도 접두어로 쓰이며 불호(不好), 조열(粗劣), 야생(野生)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는 많이 들지 아니한다.

- 개두릅: 옴나무 가지에 돋은 새순. cf. 참두릅
- 개떡: 품질이 나쁜 떡. 개(假) - 떡(墨) cf. 참떡(眞玄)
- 개머루: 머루와 비슷하나 먹지 못하는 머루. cf. 참 - 머루. cf. のぶどう (野葡萄)<일>

- 거짓말: 망설(妄舌), 허언. 거짓말<석보>, 거짓말 황(謊)<자회>. 거짓말 >거짓말. cf. 참말(眞談). 謊話·謊言<중>, うそ(嘘)·そらごと(空言·虚言)<일>
- 군살: 군더더기 살. 채육(贅肉). 군(贅)-살(肉). cf. 참살. 贅肉<중>, ぜいにく(贅肉)<일>
- 돌계집: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석녀(石女). 石女<중>, うまずめ(石女)<일>
- 돌고래: 하저(河猪). 돛-고래>돌고래. cf. 물돼야지(江猪)<한청>. 참고래. 海豚<중>, まいるか(眞海豚)<일>
- 참기름: 참깨기름. 참(眞)-기름(油)>참기름. cf. 들기름, 개기름. cf.香油·芝麻油<중>, ごまあぶら(胡麻油)<일>
- 참꽃: 두견화. 참(眞)-꽃(花). 먹는 꽃이라는 의미. 먹지 못하는 철쭉꽃의 대. 杜鵑花<중>, つつじ<일>
- 참나무: 상수리나무. 참(眞)-나무(木). cf.橡樹<중>, くぬぎ(櫟)<일>
- 참대: 왕대(王竹). 참(眞)-대(竹)>참대. cf. 竹·竹子<중>, まだけ(眞竹)·にかだけ(苦竹)<일>
- 참매미: 진선(眞蟬). 참(眞)-믹암(의성어)-이>참매미. cf. 병어리매미. みんなみんぜみ(蛸)<일>
- 참배: 먹을 수 있는 배. cf. 돌배, 뜯배(콩배나무의 열매).
- 참비름: 진현(眞見). cf. 개비름, 쇠비름<한청>의 대. ひゆ<일>
- 참빗: 세소(細梳). 密批子. 참빗<사성> cf. 열레빗(月梳). cf. 篦子<중>, すき(梳)ぐし·つま(爪)ぐし<일>
- 참새구이: 소작(燒黃雀). 참-새-굽(燒)-이(접사). cf. koumaque(考麻雀)<중>, やきどり(燒鳥)<일>
- 참외: 진과(眞瓜), 첨과(恬瓜). 참-외(瓜). cf. 오이. cf. 香瓜·恬瓜<중>, まくわうり(眞桑瓜)<일>

2) 거처에 따른 발상과 명명

생물의 거처에 따라서도 명명을 많이 한다. 사람을 비롯한 새, 짐승, 곤충과 같은 동물 및 식물이 사는 곳을 바탕으로 명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동식물의 거처로는 “되(山), 메, 들, 논, 물, 바다, 시골, 집”과 동식물(動植物)이 있다. 이러한 명명은 중·일·영 등 외국에서도 흔히 행해진다.

- 개버들: 포류(蒲柳). 포류(蒲柳) 개버들(柳柳). 개(浦) - 버들(柳).
- 굴병이: 굴벙이. 굴(穴) - 병(虫) > 굴병이. cf. 地蠶<중>
- 논우렁: 전라(田螺). 논(水田) - 우렁. = 참우렁 cf. 田螺·土螺<중>, だにし(田螺)<일>
- 들새: 야조(野鳥). 드룽(野) - 새(조(鳥)) > 들 - 새. cf. 野禽·野鳥<중>
- 멧나물: 산채(山菜) · 야채(野菜). 되(山) - 스 - 나물(菜) > 멧나물. cf. 山菜<중>, さんさい(山菜)<일>
- 밧새: 산조(山鳥). 되(山) - 스 - 새(鳥) > 밧새. cf. やまどり(山鳥)<일>
- 무소: 수우(水牛). 물(水) - 쇼 > 물소 > 무소. cf. 水牛<중>, すいぎゅう(水牛)<일>
- 바다갈매기: 갈매깃과의 바닷새. 바를(海) - 갈매기(鷗) > 바다갈매기
- 쥐벼룩: 기생충. 쥐(鼠) - 벼룩(蚤). cf. 鼠蚤<중>, ねすみのみ(鼠蚤)<일>
- 집오리: 가압(家鴨). 집 - 오리. cf. 家鴨<중>, あひる(家鴨)<일>
- 철새: 후조. 철(계절) - 새(鳥). 候鳥<중>, わたりどり·候鳥<일>
- 텃새: 유조(留鳥). 터(堡) - 스 - 새(鳥). cf. 철새(候鳥). 留鳥<중>, 留鳥<일>

3) 위치·방위에 따른 발상과 명명

사물이 위치한 자리나 방위를 바탕으로 명명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흔히 “앞~ 뒤, 위~아래, 안~밖, 속~겉, 바른~왼, 겹, 옆, 마(南), 하늬(西)”와 같이 방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된다. “곰열(熊臍), 바늘귀, 콧구멍”과 같이 다른 사물로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예는 제외하고, 협의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 가운데: 중심. 갑(中) - 은(어미) - 덕(장소)>가운데
- 곁자리: 옆자리. 곁(腋) - 자리(席). 곁자리>곁자리>곁자리. cf. 隣席<일>
- 뒷다리: 후각(後脚). 뒤 - ㅅ - 다리(脚). cf. 後腿·後肢<중>, あとあし(後足·後脚)<일>
- 마과람: 남풍(南風). 망(南) - ㅅ - 림(風)>마과람
- 바깥뜰: 외정(外庭). 바깥(外) - 뜰(庭). cf. 안뜰
- 바른손잡이: 오른손잡이. ㅅ - 손 - 잡(把) - 이>바른손잡이>오른손잡이. cf. 右手利き·右利き<일>
- 왼새끼: 왼쪽으로 곧 새끼. 왼(左) - 솟(繩) - 기(접사)>왼새끼. cf. 左紐股麻繩<중>, ひだりなわ(좌승(左繩)<일>
- 옷바람: 옷풍(風). 외풍(外風). 옷(上) - 바람(風)
- 하늬바람: 서풍(西風). 하늬(西) - ㅅ - 림(風)>하늬바람

4) 자료에 따른 발상과 명명

사물의 재질을 들어 명명하기도 한다. 재료는 “갓(皮), 나무, 쇠(鐵·鎗·金), 돌, 베, 대(竹), 버들, 죽, 짚, 콩, 털, 흙” 등 다양하다.

- 갓불: 아교풀. 갓(皮) - 불(糊). 갓불>갓불>갓불.
- 나막신: 목화(木靴). 나막(木) - 신(靴). cf. 木履·木鞋<중>, 木履<일>
- 놋그릇: 유기(鎗器). 놋(鎗) - 그릇(銅碗)>놋그릇. cf. 黃銅器皿<중>, 眞鎗のうつわ (器)<일>
- 돌구유: 석력(石櫃). 돌(石) - 구유(櫃). 돌귀요(石槽)<박통사> *구시>구시(남명)>귀요/귀유>구유. cf. 料槽<중>
- 버들고리: 버들상자(柳箱). 버들 - 고리(柳器). cf. 柳條包<중>, 柳行李<일>
- 뵤옷: 포의(布衣). 뵤(麻布) - 옷. 뵤옷>뵤옷. cf. 麻布衣<중>
- 쇠북: 종(鐘). 쇠(鐵) - 북(鼓)>쇠북>쇠북
- 장아찌: 장과자(醬瓜). 장(醬) - 과(瓜) - 덩(落) - 이(접사). 장앳덩이>장앳덩이>장앳지이>장아찌.

- 질그릇: 도기(陶器). 달(陶) - 그릇((器皿))>질그릇.
- 집신: 초혜(草鞋), 집(藁) - 신(鞋). 집신>짚신. cf. 草鞋<중>, 草鞋 · わらぐつ(藁沓)<일>
- 털갓: 전모(氈帽). 털 - 갓(笠). 털갓(氈帽子)<역어> 등.

5) 습성에 따른 발상과 명명

사물의 습성을 들어 사물을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상징어를 활용하거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활용해, 또는 비유에 의해 일반적으로 명명된다.

- 가재걸음: 뒷걸음. 가재(蟹) - 걸 - 음
- 까치걸음: 종종걸음. 가치 - 걸음>까치 - 걸음.
- 날치: 비어(飛魚). 날티(물명). 놀티>날치>날치.
- 다람쥐: 울서(栗鼠). 둔(走) - 음 - 쥐(鼠)>다람쥐. cf. 栗鼠<중>, 木鼠<일>
- 두더지: 전서(田鼠). 두디(鼯) - 쥐((鼠). 豆地鼠(향집)>두디쥐(훈몽)>두더쥐. cf. 田鼠 · 鼯鼠<중>, もぐら(鼯鼠)<일>
- 도마뱀: 석척(蜥蜴) · 용자(龍子). 도막 - 뱀>도마배암>도마뱀. 蜥蜴 · 四脚蛇<중>, とかげ(蜥蜴)
- 말똥구리: 쇠똥구리. 강랑(蜚蠊). 말똥(馬糞) - 구을(轉) - 이(접사). cf. 屎克螂 · 蜚蠊<중>, たまむしこがね(球押黄金虫) · ちようせんひら<일>
- 모래무지: 사(鯊)어(魚). 모래(沙) - 묻(埋) - 이(접사) 모리무디(柳吻)>모래무디>모래무지.
- 물맴이: 수층. 물 - 맴(廻) - 이>물맴이. cf. みずすま(水澄)し · まいまい(舞舞)<일>
- 물벌레: 무는 벌레. 물(咬) - 벌게(虫)>물벌레>물벌레. cf. 咬人の昆蟲<중>, 吸血虫<일>
- 오뚜기: 오뚝오뚝 서는 장난감. 부도옹(不倒翁). 오뚝(의태어) - 이(접사).

6) 용도에 따른 발상과 명명

어떤 사물의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형태이기보다 기능·상태에 주목한 명명이라 하겠다. 이는 핵어(核語)의 앞이나 뒤에 용도를 나타내는 말을 붙이거나, “개구리밥, 도토리밥, 순칼”과 같이 그 사물의 특성을 제시하는 말이 결합한다.

- 깔자리: 까는 이부자리. 쉴(敷) - 자리(席). 쉴 - 자리>깔자리. cf. 敷蒲團<일>
- 도토리: 돌(猪) - 이(조사) - 밤(栗). cf. 도토리밤(두해). cf. 橡子<중>, 團栗<일>
- 물부리: 흡구(吸口). 물(咬) - 부리(嘴)>물부리. cf. 빨부리. 烟嘴<중>, すいくち(吸口)<일>
- 배코칼: 칼의 일종. 배코(상투를 얹힐 자리) - 칼. 배코 - 칼(刀)>배코칼
- 부집게: 불집게. 불(火) - 집(捏) - 게(접사). 불집게>부집게.
- 빼닫이: 서랍. 빼(引) - 닫(閉) - 이. cf. chouti(抽屜)<중>, ひきだ(引出)し<일>
- 설대: 담배설대. 흡(吸) - 대>설대>설대
- 숫돌: 여석(礪石). 𪔐(摩) - 돌(石). 𪔐돌(능엄)>𪔐돌(월석)>숫돌. cf. 磨刀石·礪石<중>, といし(砥石) · と(砥)<일>
- 열쇠(鍵): 열(開) - 쇠(鐵). cf. 자물쇠(鎖). cf. 钥匙·關鍵<중>, かぎ(鍵)<일>
- 지름길: 첩경(捷徑). 즈르(近, 捷) - 로 - 길(道)>지름길. cf. 捷徑<중>, ちかみち(近道) · はやみち(早道)<일>
- 흙손: 이만(泥鰻). 흙(泥) - 손(手)>흙손. cf. 泥抹子·抹刀·鋤子<중>, こで(鰻) · かなびら(金篋)<일>

7) 성장에 따른 발상과 명명

생물의 경우 성장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특별한 발상을 통해 명명

이 행해진다. “아지”와 같은 지소사(指小辭)를 붙이거나, “어린~ 젊은~ 늙은~, 올~, 꽃~, 얼은~”과 같은 접두어를 붙여 그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다.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하듯 특수한 말을 따로 조어하기도 한다.

- 고양이(猫): 괴(猫)-앙이(접사). 괴앙이>고양이. cf. 猫<중>, ねこ(猫)<일>
- 늙바탕: 만경(晩境). 늙(老)-바탕(場). cf. 늙마. cf. 晩年·暮境<중>, 老境<일>
- 송아지: 소(牛)-아지(小兒). cf. 강아지(가히-아지), 돼지(돌-아지), 망아지(말-아지). 牛犢·犢牛<중>, こうし(仔牛)<일>
- 애기똥풀: 양귀비과의 두해살이 식물. 아기똥풀>애기똥풀.
- 어린이: 소아(小兒). 어린(幼少)-이(접사). cf. 小孩·孩子<중>, 幼子·小供<일>
- 오라비: 남형(男兄). 올(早)-아비(父·男子). cf. 哥哥·弟弟<중>, あに(兄)<일>
- 젊은이: 젊은 사람. 저문(若)-이>젊은이. cf. 青年人, 後生<중>, わかもの(若者)·としわか(年若)<일>
- 꽃내기: 애송이(素人). 꽃(未熟)-나기(접사)>꽃-나기>꽃내기. cf. 꽃밥, 꽃감. 新手<중>, しんまい(新米)·しろうと(素人)<일>
- 하룻강아지: 태어난 지 1년 된 강아지. 하룻(一歲)-강아지(小狗).

8) 동작에 따른 발상과 명명

사물을 나타내되 동작·행동과 더불어 나타냄으로, 그 사물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어휘는 때로 그 유연성을 상실해 그 동작성이 의식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형태 아닌, 상태를 바탕으로 한 발상의 명명이다.

- 감발: 발감개. 감(卷)-발(足)-개
- 귀밝이술: 이명주(耳明酒). 귀-밝(明)-이-술(酒)
- 더부살이: 남의 집에 언처 사는 사람. 다뭇(興)-살이(生活). 다뭇(興)-사리>다뭇사리>더부살이. 當傭人<중> ず(住)みこ(込)み<일>

- 매듭: 홀타(紇搭). 미(結) -듭(접사). 미듭>미듭. cf. 結<중>, むす(結)びめ(目)<일>
- 무자맥질: 수잠(水潛). 물(水) - 잠(潛) - 이 - 악 - 질. 물즈미악질>므즈미악질>무자맥질. cf. 扎猛子·潛泳<중>
- 사람: 인간. 살(生) - ㄹ(접사) - ㄹ(접사). 사름>사람. cf. 人<중>, ひと(人)<일>
- 씨레: 농기구 초과(抄耙). 서홀(耙) - 에>씨흐레>씨레. cf. 耙<중>, まぐわ・まんか<일>
- 이바지: 잔치, 연회. 이반(公宴) - 이(접사)
- 이영: 개초(蓋草). 이(蓋) - 영(접사)
- 입씨름: 말다툼. 입 - 힐흠(詰難)>입 - 씨름. cf. 打嘴仗·吵嘴<중>, くちげんか(口喧譁)<일>
- 지팡막대: 지팡이(杖). 짚(拄) - 양이(접사) - 막대((杖). cf. 拐杖·拐棍<중>, つえ(杖)<일>
- 흘기눈: 사안(斜眼). 흘긋(斜視) - 눈>흘기 - 눈. cf. 斜眼<중>, よこめ(横目)・やぶにらみ<일>

9) 계절·시기에 따른 발상과 명명

사물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계절 및 시기, 시간 등을 기초로 발상,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사계(四季)와 주야, 조석, 시각 등과 관련된 말과 결합한 것이다.

- 가을걷이: 추수(秋收). ㄹ술 - 거디>가을걷이
- 개밥바라기: 태백성(太白星). 개(犬) - 밥(食) - 바라(望) - 기>개밥 - 바라기
- 겨우살이: 월동 생활. 겨슬 - 살이>겨울 - 살이>겨울 - 살이>겨울 - 살이>겨우살이
- 낮도깨비: 낮에 나온 도깨비. 낮 - 돛가비. 돛가비<석보>
- 녀름지이: 농사. 녀름(夏) - 짓(作) - 이(접사). 녀름지시<고>두시. 녀

름지시)녀름지이)여름지이.

- 달맞이꽃: 월견초(月見草). 들(月) - 맞(迎) - 이 - 꽃. cf. 月見草<중>, つきみくさ(月見草)<일>
- 보릿고개: 춘궁기. 보리(麥) - 스 - 고개(嶺)
- 선달: 납월(臘月). 설(元旦) - 스 - 들> 셋들(두시)>선달
- 여름날이: 여름에 짠 피륙. 여름(夏) - 낳(生産) - 이
- 철새: 후조. 철(계절) - 새((鳥). cf. 候鳥<중>, わた(渡)りとり(鳥) · 候鳥<일>
- 하루거리: 격일학(隔日虐). 흐르 - 거르(隔) - 이. 흐를거리>흐르거리>하루거리. cf. 隔日虐<중>
- 하루살이: 부유(蜉蝣). 하로(一日) - 살(生) - 이(접사). 흐로살이>흐르살이>하루살이. cf. 小飛虫 · 東方蜉蝣<중>, かげろう(蜉蝣)<일>
- 해거리: 격년(隔年). 해 - 거르(隔) - 이>해거리

10) 성별에 따른 발상과 명명

생물은 개체에 따라 성을 구별하기도 하고, “암수”를 붙여 달리 명명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은 그 거처하는 곳으로 성(性)을 구별하는가 하면, 사물의 경우 생김생김의 요철(凹凸)에 따라 암수를 구별하여 명명하기도 한다.

- 갓나희: 여자. “가시(女) - 나희(人)”의 준말. 가시나희>갓나희. cf. 손나희
- 계집: 여인. 겨(在) - 집(家)
- 바깥어른: 바깥양반. 바깥(外) - 어른(主人)
- 수들마기: 수단추. 숭(雄) - 들(懸) - 막(塞) - 이. cf. 수들마기紐(紐)<자희>
- 수톨쩌귀: 문설주에 다는 쇠붙이. 숭 - 돌쩌귀>수톨쩌귀. cf. ひじかね(肘金)
- 안사람: 내자(內子). 얹(內) - 사람. cf. 老婆 · 妻子 · 內人<중>, によぼう(女房) · 家内 · うち(内)

- 수키와: 수기와 숯(雄) - 기와(瓦) > 수키와. cf. 公瓦, 牡瓦<중>, おがわ
ら(男瓦) · つつがわら(筒瓦)<일>
- 암수갈: 암수칼. 암(雌) - 수(雄) - 갈(刀劍). 암수갈 > 암수칼. 갑안햇 암
수갈히(匣裏雌雄劍)<두시>
- 어미: 어머니. 엄(女 · 母) - 이(접사). cf. 엄=암(雌). 媽媽 · 母的<중>, 母
· おふくろ<일>
- 올케: 오빠의 부인. “오라비 - 계집”의 준말. 오라비계집>올케
- 장끼: 수평. 장(雄) - 끼(雉). cf. 장닭. cf. 公野鷄 · 公雉<중>

III. 기타 감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1. 청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청각현상에 따른 발상과 명명의 대표적인 것은 의성어와, 의성어에서 파생된 파생어가 중심을 이룬다. 의성어 “찌꼴찌꼴”, “맴맴”과, 이에서 파생된 “찌꼬리”와 “맴미” 같은 파생어가 그것이다. 의태어는 시각적인 대상을 음성에 의해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대상이 시각적인 것으로, 시각에 따른 발상으로 청각적인 명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의성어 외에 의태어 및 이들로부터 파생된 조어도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밖의 청각어로는 음향감을 나타내는 어휘와 청각작용을 포함하는 어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상징어에 의한 명명 및 조어는 무수하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도 상징어가 많은 언어다. 이들의 예는 많이 들지 않기로 한다.

1) 의성어 및 이의 파생어

가르랑가르랑, 개굴개굴, 귀뚜라귀뚜, 기럭기럭, 각각, 꿀꿀, 따옥따옥, 툇툇툇, 뚝뚝뚝...

까치(가치<갯갯), 개구리(<개골개골, 귀뚜라미(<귀돌귀돌), 기러기(그럭그럭), 꿀꿀이...

귀머거리, 우름작이(울음쟁이 · 肯哭<한청>), 울대, 울음주머니(鳴囊)

2) 의태어 및 이의 파생어

가뿐가뿐, 갈팡질팡, 간죽간죽, 깜빡깜빡, 깡충깡충, 끈적끈적, 너스너스, 너털너털, 덩실덩실...

깔죽이, 깜빡이, 끈적이, 눈깜짝이, 미꾸리, 배불뚝이, 뽀짝이, 뽀죽이, 싱글병글이...

3) 음향감 및 청각작용

개소리: 조리 없고 당치 않은 말, 노래비: 노랫말을 새긴 비석, 노랫가락: 곡조, 노랫굿: 노래를 부르며 하는 굿, 멍어리: 농아, 메아리: 산명(山鳴) 등

כות래 콧소리, 지저귀, 울림, 뱃고동, 빗소리, 혀짤배기(혀-짹-아-기), 휘파람 등

2. 미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미각의 감수기관은 미뢰(味蕾)이고, 미감(味感)은 감산신고(甘酸辛苦)로 나타난다. 이들은 단일어인 형용사로 많이 나타나나, 복합어를 이루기도 한다.

단감(甘柿), 단감자(고구마), 단맛(甘味), 단물(淡水), 단배(달게 먹을 수 있는 배), 단술(甘酒), 단잠, 매운맛, 시건방(시큰둥하게 건방짐), 쓴맛(苦味), 쓴술(苦杯), 쓴웃음(苦笑), 짤지(짤-탕-이), 초친맛 등.

3. 후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향감(香感)은 기체(氣體) 감각으로, 콧구멍이나 비공 후부에서 감지하는 감각이다. 후각적 성질은 과실성, 화향성(花香性), 부패성, 초취성(焦臭性), 수지성(樹脂性), 약미성(藥味性)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향감의 대표적인 말은 “꽃답다”이다. 이는 본래 향기롭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시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변화였다. 후각을 나타내는 말은 “-내, 냄새”와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고린내, 곰팡내, 구린내, 군내, 기름내, 냄새, 냇내(煙臭<두경>), 노린내, 누린내<한청>, 단내, 들내(들깨나 들기름에서 나는 냄새), 땀내, 땅내, 똥내, 문뻗내...
곰팡냄새, 기름냄새, 배냇냄새, 흙냄새

4. 촉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

촉각은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세 감수기관이 있다. 이들에 의해 느끼게 되는 감각은 압각, 통각, 온각, 냉각의 네 종류다. 촉감을 나타내는 말은 특히 “미끄럽다, 보드럽다, 우툴두툴하다, 포근하다”와 같은 압감(壓感)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많다.

가벼운입술소리((脣輕音), 무게(목(重)-에))/ 가슴앓이, 배앓이, 이앓이
까칠복(복어의 일종), 갈쭉이(가장자리를 갈쭉갈쭉하게 만든 금화), 더듬이, 돋을새김(凸彫), 미꾸리, 미끄럼틀, 오목거울, 움두꺼비 등
더운같이, 더운무대(暖流), 더운술(따뜻하게 데운 술), 더운피, 식은땀, 찬국...

IV. 결어

한국어의 어원을 발상과 명명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어원은 사료 부족과 비교언어학적 연구의 부실로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발상에 따른 중간어원의 확인에 중점이 놓여 있다.

발상은 오감(五感)을 바탕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어휘, 특히 고유어 체언은 오관 가운데 시각을 바탕으로 한 발상에 의해 많이 명명(命名), 조어(造語)되었다. 이것이 8할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뒤를 있는 것이 청각이고, 그 밖의 감각에 의한 명명 및 조어는 그 수가 미미하다.

시각에 따른 발상과 명명은 형감, 색감, 광감에 의해 이루어지며, 형감에 의한 것이 압도적이다. 형감(形感)에 따른 명명은 형태와 상태에 따른 것으로 구별된다. 이들은 (1) 대립적 특징, (2) 거쳐, (3) 방위, (4) 재료, (5) 습성, (6) 용도, (7) 성장, (8) 동작, (9) 계절, (10) 성별 등에 따라 많이 명명된다. 이밖에 구상어의 추상어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립적 특징에 따른 명명으로, 표리, 선후, 친구, 본말, 인과, 진부(眞否)를 기초로 하여 명명한 것이다.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기관에 따른 발상과 명명은 미미하다. 청각에 의한 것은 의성어와 이의 파생어가 다소 있는 편이며, 미감을 나타내는 말은 단일어 형용사가 발달되었고, 이들과의 복합어가 다소 보인다. 후각에 의한 것은 “-내”, 또는 “냄새”를 접미사처럼 활용한 복합어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촉각에 의한 것은 압각(壓覺)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주류를 이루고, 촉각어와 복합어를 이루는 명명이 다소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끝으로 명명을 중국어·일본어·영어 등 외국어와 비교해 보면 중국어·일본어와는 유연성을 많이 보인다. 특히 거쳐, 위치·방위, 자료, 계절·시기에 따른 발상과 명명은 많은 유연성이 보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 본 논문은 2014. 8. 18. 투고되었으며, 2014. 8.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 박갑수(1979), 『사라진 말, 살아남는 말』, 서래헌.
- _____(1995), 『우리말 바로 써야 한다』 1, 2, 3, 집문당.
- _____(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방법론, 배제대학교 대학원(미간행).
- 박일환(1994),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 서정범(1989),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유창돈(1961), 『국어변천사』, 통문관.
- _____(1973),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 조항범(1997),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 최창렬(1987),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 _____(1993), 『어원산책』, 한신문화사.
- Ramstedt, G. J.(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Soumalais-Ugrilainen Seura, Helsinki.

ABSTRACT

Etymology, Ideation, and Naming of Korean Word

Park Kap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for the etymology of Korean words in terms of ideation. The etymology of Korean words has never been properly studied till today, due to the scarce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insufficient researches. This study has been executed with a main focus on the etymology of middle term, rather than the original etymology.

Ideation is made mainly through 5 organs of sense. Naming and word-formation in the vocabulary of Korean language, especially the substantive of original Korean, are made most frequently by the ideation through the sense of sight; and less frequently through the auditory sense; but very rare through the other sense.

For ideation and naming through the sense of sight, predominating is the sense of shape, over the others such as the color sense and the optic sense. Naming through the sense of shape may have 2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shape and condition; or 10 different ones such as [1]distinctive characteristic, [2]place of residence, [3]direction, [4]material, [5]habit, [6]usage, [7]growth, [8]season and [10]sex.

For sense other than sight, this study found some onomatopoeias and their derivatives, both through auditory sense; some adjectives, developed through the sense of taste; and few complex words are typically found using “~nae(~나) as like a suffix. For the sense of touch, the main stream is adjectives, through the sense of pressure.

KEYWORDS Etymology, Ideation, Naming, 5 organs of sense, Original Korean